신노사문화 정착, 기본 원칙 준수, 무재해 일터로 거듭나다.

-(주)유한양행 -

▲ 최상후 사업지원본부장

드넓은 들판에서 뛰노는 아이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음짓는 부모님. 행복한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이러한 행복을 위해 기초가 되어야 할 안전, 그리고 건강, 어찌보면 안전과 건강 이 두 가지는 같은 듯 다른 모습으로, 다른 듯 같은 모습으로 이 사회를 지켜가는 버팀목으로 자리한다 할 수 있다. 경기도 군포시에 그 버팀목을 함께 이어나가는 기업이 있다하여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이곳, 그러나 도심지에서 쉬이 볼 수 없는 탁 트인 전망, 일제 강점기에 있던 우리의 실상을 보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통한 주권 회복을 이룩하기 위하여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유한양행이다.

1926년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라는 이념하에 설립된 유한양행은 1979년 군포공장을 준공하여 2002년 신노사문화 대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2005년초 무재해

5배 달성을 위해 돌진하는 저력있는 기업이다.

■ 원칙과 기본 준수를 통해 이룩하는 무재해

안전사고의 발생 연유를 분석해 봤을 때 상당 부분의 사고가 절차나 원칙 등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함을 지적하고 이곳 유한양행에서는 안전사고예방에 있어 원칙과 기본준수를 강조한다. 특히, 건물입구나 식당 등에 걸려있는 플랜카드는 이러한 내용의 표어를 직원들에게 공모하여 그 중 우수작을 선정・제작한 것으로 직원들 스스로 실천코자 하는 표어이며 방침인 것이다.

여기에 전기설비기술사이며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최상후 사업지원본부장이 이곳을 이끌어가면서 유한양행의 무재해 운동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지난 2002년에는 무재해 3배수를 달성하여 현재까지 무재해 사업장으로 거듭나고 있고 2005년 무재해 5배수 달성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이곳을 무재해 사업장으로 이끌어가는 활동 중에는 1996년 국내 제조업 최초로 실시한 스트레칭 체조가 있다. 최근 얼마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당시에는 미쳐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한석 안전관리자는 1996년부터 실시하여, 지금은 사업장내 완전히 정착된 상태이다.

또한 일상작업 중 사고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사고가 일어날뻔한 행동이나 상태를 발굴하여 직원들에게 교육시킴으로써 잠재된 위험의 사고 가능성을 제로화시키고, 1999년부터 시작된 6시그마 운동을 추진하여 제품의 질적 향상과 함께 사고없는 현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 신노사문화와 함께 발맞춘 안전

신노사문화 대상을 수상한 기업답게 노사의 구분이 없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종업원지주제를 처음 도입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구분을 없애고 모두가 근로자인 노노의 형태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한다.

이에 2003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첫 사업장 방문지로 이곳을 방문하여 국민들 마음 속에 담고있는 유한양행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고 한국노사문화의 귀감이 되는 기업이니 만큼 타사에 모범이 되어 한국노사문화를 이끌어 가는 초석이 되기를 당

부하기도 하였다.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밝은 유한인 선발제도는 매월 전화예절이 바르고 인사를 잘하며 복장이 단정한 사원을 뽑아 각 부서장이 한 사람씩 추천하면 그 데이터를 집계하여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직원을 밝은 유한인으로 선정하는 제도로, 보다 밝고 가족적인 회사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안전한 작업환경도 창출시키고 있다.

■ 이윤추구만이 아닌 사회환원도 함께하는 기업

유한양행은 우수 의약품의 생산을 통해 국민건강 향상을 기여하고,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며,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기업 이념을 갖고 있다. 이에 직원들 스스로 한마음 사랑회를 조직하여 라자로, 양지의 집 등을 찾아 봉사하고 관내 250여명의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과 자매결연을 맺어 매월 일정금액 지원하고 있으며, 부서장 이상 간부들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전직원이 이웃사랑의 정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작은 이웃사랑의 활동 하나하나로 유한양행 식구들의 소양을 더욱 깊이 쌓고 자칫 삭막할 수 있는 경쟁 사회에서 작은 것도 이웃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며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직원의 건강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목표를 달성한 직원에게는 별도 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3년전부터 실시한 금연운동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절주캠페인도 함께 병행하여 직원들 사이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업과 나라와 국민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 유한양행은 2005년 충북 오창산업단지로의 신공장 이전과 경기도 기흥으로의 중앙연구소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현 사업장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의 안전도 함께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서로가 협력하고 함께하는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전직원 모두가 함께 어우러 발맞추는 이곳의 안전문화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전역에 널리 전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성호연 기자〉